

## 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 산업부 장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 실시
- 伊초감가상각제도 개선 성과 공유 및 제조업 AI 전환(M.AX)·반도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순방 계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월 11일(목)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공동의 핵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측은 최근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경제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통상환경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 측이 지난 3월 28일 긴급법령으로 공포한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의 ‘지역 제한(Made in EU)’ 폐지를 5.22일에 국회의결을 거쳐 신속히 법률로 최종 전환하여 양국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기계·설비(소프트웨어 포함) 도입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도입시 수혜대상을 ‘EU産 유·무형 자산’으로 한정

또한, 양측은 우수한 한국産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는데 공감 하였으며, 향후 EU 경제입법 과정에서 양국 기업 산업 생태계 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단산업 분야 논의에서 양측은 AI·반도체 중심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국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인 M.AX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분야 역량을 공유하며 한국의 세계적인 메모리·파운드리 기술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양측은 전기차·배터리 등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통상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제조업 AI 전환과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공통의 산업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양측은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산업·통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논의는 개별 현안에 대한 공조를 넘어 양국 산업 전반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EU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협력을 두 축으로 삼아,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임은영 (044-203-5668)

